



청년과 실업

-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

신재용

에피소드

평일 낮 결혼식은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 이상을 결혼식장에 할애하기란 요즘 같은 업무량 폭주 시대에는 무척 눈치가 보이는 일이다. 결혼예식 시간은 30분 남짓, 사진 찍고 건배하고 밥먹고 하면 약 1시간, 거기에 오며가며 길에 흘린 시간까지 합하면 줄잡아 2시간은 족히 내야한다. 팀워크를 강조하는 현대직장 구조상 동료 모두가 하루 일과중 그것도 한창 작업중일 시간에 2시간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일을 대신 저야함을 의미한다. 결국은 민폐아닌 민폐를 끼쳐야한다.

K군의 결혼식은 화요일 낮 1시에 있었다. 직장 근처에서 예식이 있었기에 점심시간을 내서 잠시 들렀다. 또래 친구들이 근 30명은 좋게 모였다. 신랑도 신부도 함께 했던 친구들도 모두 놀랐다. '이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참석자들의 면면을 되짚어 보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30명중 7명 남짓의 친구들은 실직상태에 있었고, 3명은 비정규직(일용직) 근무자들이었다. 시간 사용에 다소 자유로운 전문직 종사자들 3명을 제외하고 나면,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눈치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선 친구들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문제 제기

실업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다양한 직종내에서 최근 나타나는 수치상의 실업률은 우리의 눈을 통해 보이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다. 그 친밀성은 <죽음>과 유사하다. 우리 주변의 일상사의 하나가 되어버린지 오래인 친숙한 삶의 과정인 것처럼.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석가모니에게 묻는다면 어떠한 대답이 나올까? ; '실업의 그림자가 없는 집의 물을 먹어라, 그리하면 취업을 할 것이다.' 우리의 실존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실업>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하이테크놀러지 사회를 불러온 계몽시대의 적자, 기술지상주의는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한다. 과학 기술을 통한 삶의 풍요를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 사례 또한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비평들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흔한 활자들이 되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지만, 잠정적인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기술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인간을 자유롭게 한 기술이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하이테크놀러지 사회의 딜레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의 노동권에서도 나타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위축, 혹은 일자리의 증발등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다수의 노동인구가 몸담고 있던 블루투의 일자리들을 빼앗고 있다고 분석한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 곧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선후배들이 겪고 있는 실업의 고통이 단순히 진보된 기술에 빼앗겨버린 노동권의 단면이라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할 곳이 없다, 일하고픈 마음이 없다.

현실은 가혹하다. 과거처럼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만을 가지고 뛰어 들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직업훈련이 없는 쉽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고전적 의미에서의 육체노동의 기회 상실이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근육을 대신하는 정밀기계와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자들, 이 기계와 일반인들을 매개하는 중계인들(서비스 종사자들), 그리고 미디어와 공생하는 통칭 연예인들 및 향락산업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구조 변화와 더불어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 규모를 고려한 연간 고용규모 증가는 약 30만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약속한 바처럼 현대적인 노동환경의 변화가 수적인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아마도, IMF 이후의 절대적인 취업기회의 감소를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기에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훈련부족으로 발생하는-훈련받지 못한 노동자와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신규일자리 사이에서 느껴지는-상대적인 체감 일자리의 감소까지.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일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일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노동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 4월 기준으로 약간의 실업률 하락이 보도되긴 하였지만,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단언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지난 1월 대비 8만 7명 증가한 106만 9천명으로 실업률은 0.4% 포인트 상승한 5.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때와 비교하면 0.3% 포인트 하락한 것이긴 하다.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재학생의 학업복귀 및 졸업생의 구직요청 증가가 이에 대한 원인이라고 통계청은 자체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들을 보정한 계절조정 실업률만으로 보더라도 지난 9월에 비해 0.3% 포인트 상승한 4.2%로써 실업의 증가는 감소되지 않았다. OECD 기준 실업자 및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5.4%에 해당하는 114만 5천명여명이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는 균형실업률

(경기적 실업없이 단지 구조적 실업등 비수요부족 실업만이 존재하는 상태의 실업률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을 약 3.4%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치는 정상적인 실업률을 훨씬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의 이수봉 소장은 통계청이 실업자를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써,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라도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자'인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적은 통계청 발표 자료상에서 확인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올 2월까지 매달 61.1%, 59.9%, 58.5%로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졸업자등 구직인구의 증가요인에 비추어볼 때 다분히 작위적으로 실업률이 조작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또한 '조사 주간 중 수입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던 임시직 혹은 단시간 노동자들이 취업자로 집계됨으로써 연중 실업일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률 집계에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연구위원은 단기간 실업을 반복하는 반복실업자들의 누적 실업기간이 연 6개월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34.8%를 차지하는 임시직 근로자 및 15.4%를 차지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약 91.6%, 55.9%가 안정적 지위에 있다고 단정한다. 이는 1년 이상의 임시일용직인 '장기임시근로'를 통계청이 임시직의 안정화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장기임시근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인력조정 용이, 인건비 절감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거나 자동연장함으로써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지나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및 저임금 촉진정책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실업률속에 감춰진 일반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안정고용은 단지 해고불안의 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여건의 개선을 통한 장기 고용심리의 증가에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월간 <노동사회> 5월호에 기고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58.4%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758만명이 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 임금이긴 노동시간을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보다 문제인 것은 5인이상 사업체의 의무조항이 된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74-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22-25%에 머물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및 연월차 적용률 또한 16-23% 수준(정규직 73-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치상의 미세한 감소 이면에 내재한 삶의 격차에 대한 독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고픈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왜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선진국에 있어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8.4%, 실업률이 26.6%로 경제활동 참가율/실업률 비율에 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원의 정책논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에 따르면 99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14.2%로써 노동인구의 전체실업률인 6.5%의 200%를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의 증가요인을 네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평균 (고등)학교 졸업 후 9.3년만에 직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이는 OECD의 평균인 7.4년에 비해 약 2년이 길다. (2) 청년 노동인력이 유희인력화(그는 청년의 유희인력을 '실업상태에 있거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으로 남아있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정의한다)되고 있다는 점이다. (3)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과 이로 인한 취업의욕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4) 빈번하게 산업 및 직업변동을 경험하는 경력이동은 재취업시의 취업기회 감소로 이어져 실업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4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청년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용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안주엽 연구원은 올해 신규대졸자 실업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는 99년의 27.6%, 2000년의 23.9%와 비교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올 3월 실업률(28.8%)만으로도 작년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앞서 소개한 논문에서와 유사하게 기업의 과도한 신규채용 감소에 따른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으로의 장기화, 그리고 하향취업 경향 및 일자리의 불일치(job mis-match)로 인한 심리적인 고용불안정 및 실업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포기 및 이로 인한 장기실업화 등이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 청년층이 체계적으로 직업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세계에 진입하여서도 체계적으로 경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과거와 비교에 매우 나태해진 젊은 세대, 결국 어른들 말씀처럼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 신세대들의 삶에 대한 자세가 문제라는 점에 대한 분석은 새겨들음만 하다. 하지만, 청년실업의 문제를 개인능력의 문제로만 보기에선 화가나는 구석이 적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능력이나 자질, 의지 등 개인적 요소가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주는 혜택을 비판없이 누리는 황태자들 뿐이리라. 너무 잘라고 똑똑해서 사회구조가 주는 해악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쓴잔을 들이켜보지 않은 시대의 엘리트들 말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정규직의 감소 및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노동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임시직 혹은 일용직 근무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작업현장에 활용하는 정도가 낮고, 따라서 이러한 직업에서 느끼는 불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을 청년 노동자 자신의 책임으로만 짐 지울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라는 구호속에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및 저임금정책은 분명 이러한 청년층의 나태한 의식에 대한 원인제공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주도의 국제경제구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도 되는 양. 하지만, 촛스키의 지적처럼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란

계약도 권리도 미래도 비전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칭하며 학문적 관점에서는 더없이 좋은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인간중심적 시각에서는 결코 건전한 사고방식이라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썩을 대로 썩은 이론인 듯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더 나은 대우로 초과 시간을 일한다는 뜻이지, 내일이라도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니다.(츨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2000)

비인간적인 제도로 무장한 비인격적인 권력이 가지고온 파장에 나뭇배 한척이 넘실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제기되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불구하고, 증가하는 청년실업자를 매우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 정보처리 및 인터넷 일색의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영세한 작업장에서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벤처직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못해서 부모나 형제의 사업체에 숙식 및 약간의 용돈을 제공받으며 무급근로자의 길을 택하는 주인집 도련님, 낮은 임금에 일시적인 교육지책으로써 인턴직이라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하는 대졸취업생, 그나마 인턴직에 합격하고도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자리 자체를 반납해야하는 운 나쁜 실업자,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책없는 대학원생 및 실직의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여겨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는 거룩한 백수, 그리고 급격한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해 전문직 자격획득을 위해 고시등에 몰입하는 꿈 많은 고시생,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취업 자체를 포기해 버린 답답한 청년들은 이미 사회화되어버린 실업자들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조선일보에 최근 연재되었던 <청년백수>의 기사처럼 부모에게 '엎혀사는'는 노블레스 백수들까지 실업자의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관 조차 이들을 '써주지' 않는다. 이들 모두 통계수치산출을 위한 자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숨기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실업인구 실종정책(비경제활동인구 및 무임가족종사자의 증가)과 비정형적 취업알선정책(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의 최대 수혜자는 청년실업자들이다. 하지만,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고성능 스텔즈 전폭기들이 삶의 현장에 뿌려놓은 문제의 파편들까지 정부가 숨기지는 못할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피말리는 경쟁이 필연적인 것인양 국민 정서를 조작하는 권력에게 과연 권력의 정당성을 지지해줄 유권자란 아닌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국민이란 애초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삼천포로 나가며 - 청년실업 시대의 기독교적 청년운동의 방향에 대한 소론

모든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실업자들이다. 지배계층 논리를 충실히 따라온 소수 엘리트나 대물림된 풍족한 자산을 가진 일부 부르주아들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은 언제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지 모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남성에게로, 일반직에서 전문직으로, 그리고 서비스노동직에서 지식노동직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이같은 잠재적인 실업에 대한 불안은 청년들의 비전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들에서 잘 나타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때의 비전은 소명(calling)과 동의어로서 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 어떤 직능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결국 이는 고실업시대, 특히 청년실업시대에 잠재적 실업자들이 가진 불안의 종교적 표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운동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다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른 기회를 빌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략한 논지만 서술하고자 한다.

하나는 잃어버린 '소명'(calling)의 의미를 우리의 직업에서 실질적으로 되살리는 방향에서의 청년운동이다. 소명은 기니스가 정의한 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소명은 우리의 부르신 세속적 직업과 이를 수행하는 윤리로서의 계율이라는 협의적인 의미로만 파악될 성격의 것은 분명 아니다. 이곳에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담을 수 없다. 하지만, 베버가 '윤리적 색체를 띤 생활영위의 격률'로 표현한 근대 자본주의의 동인이었던, 직업의 기독교적인 의미로서의 '소명'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이의 재인식은 삶의 나태와 방향성 상실의 실업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건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의 삶을 구체화시키며 창조적인 역동성을 부여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직업관을 포함한 세계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론학습 및 체험학습이 필요하며, 이것을 함께 실험하고 격려할 공동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주도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고양시키는 청년운동이다. 체제, 곧 지배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교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혜택을 입은 체제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등을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전복적 사고 및 비판적 인식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청년운동이 필요하다. 샤르트르의 말처럼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투쟁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체제의 구조, 자신의 운명에 의하여 특수화된 개별적 집단이 보편성의 법칙을 따르도록 투쟁하는' 지식인을 이 사회는 필요로 한다. 기독교청년운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사회와 교회내에서 정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지식인들을 키워내는 일은 기독교청년운동이 특별히 주력해야 할 사업이다. 사회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직종간 폐쇄성이 증가하고 관련지식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의 가능성이 증가는 상황에서 현실에 순응적인 엘리트나 현실에 등을 돌린 일반대중이 아닌 그 둘 사이의 문제를 분석하고 지적하며,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중재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청년운동은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는 열쇠

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체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비판, 그리고 대안모색을 위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청년운동의 주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한심한 기독교청년의 현실은 전방위적인 기독교인, 전영역을 주께 복종시키는 균형잡힌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장은 단순한 기대치일 뿐이다.

에필로그

실업문제의 구조적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편으로 눈물이 날 정도다. 단기, 장기 실업자 구제대책에 자금 지원까지 서류상으로는 그럴 듯 보인다. 물론 예전과 같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시행착오를 거친 이상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싶다.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앞서 늘어나는 실업인구, 나의 동료이자 친구이며 선후배인 청년실업자들(언제쯤 나도 합류하게 될지 모르는)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현실적인 청년운동을 꿈꿔본다.